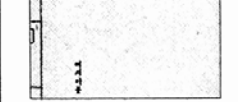


일기로 보는 절집생활 '감동과 재미'

지허스님 '선방일기'

일기체의 불사가 불교 출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동자와 선방, 그리고 포교당의 시시콜콜한 일상부터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열정을 일기체로 적은 스님들의 이야기가 속속 출판되면서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에 위안이 되고 있다. 내용들은 대부분 순수하고 청정심이 깃든 스님들의 사생활로, 수행자 또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살갑게 파고든다.



선방일기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내놓은 <선방일기>가 대표적 사례. 이 책은 70년대 상원사 선방에서 동안거를 지낸 지허 스님이 쓴 일기로, 뒷방의 야사, 소일, 선방의 일과, 선객의 고독, 발사에 얽힌 이야기 등 3개월 동안의 선방 생태와 풍속을 솔직 담백하게 적고 있다. 이로 인해 속세의 삶과 무관하게 사는 듯한 스님들의 선방생활에 궁금했던 독자들에게 '아하! 선방생활 이렇게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 '스님일기' 붐에 불을 지폈다. 값 5천원.

이러한 바람은 철부지 동자의 행자생활을 담은 영담 스님의 <동승일기>(들녘), 원옥 스님의 <포교당 일기>(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민족사), 지록 스님의 <산승일기>(우리)로 이어지고 있다.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 스님의 행자생활을 적은 <동승일기>는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편지 한통 들고 김천 청암사를 찾은 13살의 철부지 소년, 행자생활을 시작하지만

체험당 중심 글맛나는 서술

행간에 계행과 청정심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화들은 때론 가슴 뭉클하게, 때론 폭소를 터뜨리게 한다.

화장실 벽에 잠깐 기대어 있다가 새벽에 불어 닳기도 하고, 꿀을 훔쳐먹다가 큰스님께 혼이 나면서 절집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특히 추운 겨울날 대중 스님들의 포입에 빠져 비구니 스님들의 신발에 물을 부어 공공 열린 일이나, 처음 본 라면을 어떻게 끊는지 몰라 면발이 손가락만해도 폭삭삭 내뿜는 일 등은 코끝이 핏개오는 아찔한 웃음을 동반한다.

이처럼 이 책은 60년대에 있었던 법한 해프닝을 소재로 하고 있어, 30대 이상의 독자들에게는 공감했던 한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어들게 한다. 값 8천5백원.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는 원옥 스님이 도심에서 처음으로 포교당을 열때의 일기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세상사를 비구니 스님 특유의 정갈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의 첫 부분을 펼치면 포교당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스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른 아침 서를 방화통의 어느 골목, 포교당 마련을

위해 온종일 복덕방을 찾는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뒤돌아서기를 반복한다. 결국 한 달만에 월세 계약을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마을을 서성이다 한 아이를 만난다. "정말로 스님이 맞아요."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 순간 일옥 스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한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사는 세상에서 부처님을, 스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포교의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값 7천5백원.

일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남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만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지록 스님의 <산승일기>는 내밀한 기록이 아닌 공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스님이 일에서 겪은 일들을 적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절이란 어떤 곳인가, 스님을 대할 때는... 등 불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값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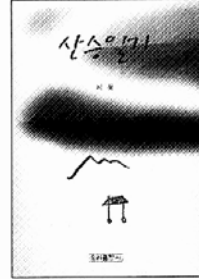
스님들이 쓴 일기체의 불사는 절간 생활과 체험담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절저한 계행과 청정심, 그리고 원력으로 깨달음을 찾아가는 구도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해 보인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a.com)

영담스님 '동승일기'



지록스님 '산승일기'



새로나온 책

▲불교와 유교(아라키 겐고 지음, 심경호 옮김, 예문서원)= 유교와 불교 공통의 토양을 찾아 사상 이행의 본질을 해명한 연구서. 글쓴이는 중국 철학을 날을 수 있었던 공통의 토양을 본래성이라 한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외치는 선불교, 모두가 성인임을 주장하는 양명학, 그리고 주자학, 이 모든 교학의 성립이 본래성의 하다고 본 것이다. 값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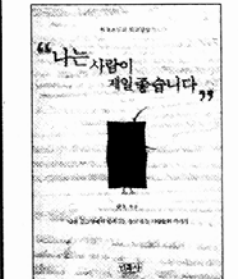
▲열린 종교와 평화공동체(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 열린 종교를 지향하는 종교간의 대화운동 35년과 새로운 문명시대의 종교 방향을 제시한 책. 1965년 이후 종교간 대화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국 내의 종교간 대화의 사회적 기능과 전망은 어떠한지를 다른 테마대담을 비롯 각 종교가들이 격론을 통해 들려주는 사회와 종교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있다. 부록으로 '종교간 대화 관련 단체 목록', '종교간 대화 관련 도서목록'도 수록돼 있다. 값 8천5백원.

▲심일신고(최동환 지음, 지혜의나무)= '심일신고'는 인간의 중앙에 내려와 있는 일신에게로 돌아가면 성공광명, 재세화, 홍익인간을 이루고, 다시 일신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담고 있는 경전. 즉 이 책은 우주 전체와 인간의 모든 혼돈을 366자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고전이다. 글쓴이는 현대의 철학, 과학, 고고학, 인류학 등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값 2만원.

▲자기 중심이 아이를 망친다(마치자와 시즈오 지음, 이송은 옮김, 창림)= 우리 아이, 이대로 좋은가. 우리 사회의 속 많은 부모. 위협받는 교사를 위한 한 정신과 의사의 긴급처방. 자기 중심적 성향이 어떤 양상을 띠고 사회문제로 나타나는지 여러 예를 통해 보여 준다. 특히 부모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문제점을 상세히 밝히고, 아이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과잉보호는 결국 '학대'나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값 7천5백원.

▲약 안 쓰고 수술 안고 심장병 고치는 법(딘 오니시 지음, 장영갑 옮김, 석필)= 생활습관을 바꾸면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 미국의 심장전문 의인 오니시 박사는 환자의 심리적, 감정적 측면과 식사, 흡연, 운동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꾸면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가 창안한 '심장병 반전 프로그램'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심장병을 호전시키는 임상결과를 얻어냈다. 값 1만원.

원옥스님 '나는 사람이...'



마하르쉬 시리즈 출간

생애-가르침 담은 두권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탐구의 수행법으로 알려진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아우나 총서 시리즈 가운데 두 권이 나왔다.

첫 권 <마하르쉬의 복음>은 어록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커달음이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다만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무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법을 권장한다. 값 6천원.

두 번째 권 <바가반의 말씀을 따른 삶>은 마하르쉬의 제자 안나말라이 스와미의 회상록으로, 그가 기록한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진아(眞我)를 깨달은 뒤에 수행자들과 주고받은 자신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값 1만5천원.

도서출판 탐구사는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의 길>, <무심(無心)-나는 진아이다>, <빠빠지 면담록>, <추억의 마하르쉬> 등도 펴낼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김영애씨 '절 안의 생활, 절 속의 문화재'

사찰은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다. 하지만 사찰을 찾아서 그 속에 깃든 우리 문화의 향기와 역사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찰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던 불교미술학자 김영애(용인대 회화과) 씨가 절 안의 생활과 문화재를 해설한 <절 안의 생활, 절 속의 문화재>(다할미디어)를 내놓았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 안의 생활'에서는 절의 의미에서부터 스님들의 생활, 사찰 의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국의 사찰 현황 및 북한의 유명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절 속의 문화재'에서는 사찰 경내의 전각을 비롯하여 불상, 불화, 범종, 석탑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불교미술과 종교



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 '역사 속의 큰스님'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쌓은 고승들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 불교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며, 부록 격인 '절에서 많이 읽히는 불경'에서는 모든 불교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독송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의 원문과 해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그 뜻을 이해하면서 불경을 독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불교를 몰라도 술 술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정토신앙 대표경전

한권으로 묶었다

도서출판 시공사는 최근 정토부의 대표적 경전을 한권으로 묶은 시공불교경전시리즈 일곱번째 권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을 내놓았다.

이 경전들은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어 만든 청정한 세계인 극락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이 장로 사리불에게 극락의 모습과 극락왕생을 위한 수행법을 개괄적으로 살하는 내용으로, 열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경전이다. 반면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이 출현하게 된 인연을 밝히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극락세계를 보는 16관법과 서방에 태어나는 구품구생의 사람, 그리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청명 열불에 대해 살하고 있다.

정토의 세계를 다룬 대표적인 경전을 모아 엮은 이 책은, 우리말 풀이와 장마다 덧붙여진 해설, 그리고 각 단락을 요약한 대의를 통해 보살의 서원이나 극락세계를 보는 관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 재성	선재
3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이당
4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교림
7	위빠사나 성자 아반 돈	김열린	불광
8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리
9	티벳 해탈의 서	피터 샬버	정신세계사
10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도서 안내: (02)737-0695

처절한 영욕이 교차하는 피와 땀의 역사!

한국불교 100년

1900~1999

편자: 김광식/ 사진: 윤창화

도전과 좌절, 회고와 반성 그리고 냉엄한 평가! 한국불교, 지난 100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100년, 그 사이 우리 불교는 일제치하에서 갖가지 수모를 겪었고 해방 후에는 비구 대제간의 싸움으로, 70년대 이후에는 문종간의 싸움으로, 90년대에는 폭력과 각목이 난무하는 종편 다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새로운 불교 건설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 책 속에는 총 1,100여 점의 각종 기념사진과, 신문기사, 인물, 문화재 등이 실려있습니다. 특히 개화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사진들은 우리가 거의 볼 수 없었던 화기 사진들입니다.



국배판 460쪽 아트지/ 값 58,000원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팩스 739-7565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우리 점의 편액 바로보기 ①

- 추사 김정희가 쓴 영선 은혜사 '보화루(寶華樓)'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맛을 감상한다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리밀(六波羅蜜) - ① 지계(持戒) 불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실천적일인 오계(五戒)의 의미를 알아보고,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떻게 오계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불교특강 - 21세기의 화두를 불교에 묻는다

- 최초로 집권해보는 가상현실에 대한 불교 철학적 조명!

컬러화보 ① 이호신 화백의 생애그림첩 - 그림 속에서 찾는 산수화 기법의 숨결 - 花心의 도량, 相生의 도량, 청도 호거산 운운사

컬러화보 ② 사진으로 보는 기암의 어제와 오늘 - 범어사, 은혜사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비교해본다

특별기고

김용옥 선생을 옹호하는 신규택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 지난 호 집중서평 '김용옥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는 제하의 신규택 교수의 글에 대한 반성적 기사와 효산 스님의 반론



2000년 5·6월호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불교문화 평화와 비폭력의 상징, 티베트 불교여행 - 최근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달라이라미 사이트 소개 및 티베트 불교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집중서평 - 『종교와 과학』(정진홍 외 지음, 아카넷간)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개척을 찾아서(인문/출판)

불교지문화 창달과 在家佛의 개척자, 이희익 기사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선불교의 문화 탐방

- 일본 스진왕조를 식민지로 인정한 신라왕자 천일왕의 발자취

중국 속의 한국불교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서

- 달마 대사와 혜능 대사의 연구가 광동성 탐사기

현대인을 위한 일기수첩 불교신행

지장신앙,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지장신앙의 특징, 지장기도법, 지장기도도량 소개)

우리시대의 匠人

지불(紙佛)을 만드는 전통한지공예 장인 상기호 씨

역원간 불교문화와 전화: 02-719-2606, 전승: 02-719-5052 E-mail: kbpf@chollian.net